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0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10일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이재명 "국민 통합·실용주의 대통령 되겠다"

국회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공식 취임…국가 비전 제시
민생회복·경제 살리기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1호 행정명령
"내란 재발 안 돼…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관련기사 2·3·4·5·6·7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통합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면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돋보인 '광주정신'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민생회복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 정부론을 내세웠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극화한 부의 분배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양극화된 부의 분배에 대한 생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cal

이 대통령은 후보 때였던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재난·치안·재해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도 지시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인공지능(AI)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해 광주·전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확정한 이날 오전 6시21분부터 임기를 시작,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하는 등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국회 취임선서를 마친 뒤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오찬 자리를 마련했다. 우 의장은 앞서 대선 개표 전에 각 당에 이같은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정식 취임행사를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 명칭을 '대통령 임명식'으로 한 것은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한다. 새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임'을 기념하겠다는 취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 턱 쏩니다" 광주 곳곳 자축·나눔 행사 ▶7면
KIA 홍원빈 1군 데뷔 "필승조 되겠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강원도 고성 화진포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내일 현충일 … 신문 쉽니다

총리 김민석·국정원장 이종석 지명 … 비서실장 강훈식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종석 후보자

강훈식 비서실장

새 정부 첫 인사 발표
안보실장 장흥 출신 위성락
경호처장 보성 출신 황인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 "70년대생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